

‘꼭두각시전’의 혼성텍스트적 성격과 주제의식

김 국 희*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주제 덧씌우기와 의미 |
| 2. 인물의 처지와 결연의 상반성 | 5. 맺음말 |
| 3. 기존 문학관습의 효과적 활용 | |

국문초록

본고는 ‘꼭두각시전’에 노처녀가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관습이 내재한 점에 주목하여 꼭두각시전이 지닌 혼성텍스트적 성격과 주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꼭두각시전은 광명서관본 <로처녀 고독각시>를 텍스트로 하여 여타의 이본을 참작했고, 노처녀가는 삼설기본<노처녀가>를 텍스트로 했다.

꼭두각시전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남녀의 결연에서 <노처녀가>의 ‘노처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불구의 몸으로 준수한 양반도령과 성혼하는 ‘노처녀’와는 달리 가난한 고아인 소설의 주인공이 극빈한 집안의 불구 신랑과 혼인하는 것은 작품의 개연성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

* 동서대학교 강사

다. 또 꼭두각시전은 판소리 사설, 잡가, 민요, 설화, 민속인형극 등의 다양한 기존 문학관습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민요와 설화의 차용은 인물 창조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민속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에서는 주인공을 착안하되 그것을 역이용하여 유교적 주제의식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노처녀>가 시집 못간 여성의 한탄을 발랄한 서민적 기풍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면, 꼭두각시전은 혼성텍스트적 성격을 통해 서민들의 원초적 생명력과 발랄함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성혼 후 유교적 부덕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발랄한 서민의식에 유교적 주제를 덧씌우려는 의도로, 조선후기 외세의 침탈과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보수적 가치관의 회복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꼭두각시전의 주인공을 민속인형극에서 착안한 이유도 <꼭두각시놀음>을 풍속을 비속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그 개량화를 주장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주제어 : 꼭두각시, 꼬댁각시, 고독각시, 노처녀가, 혼성텍스트, 내 복에 산다, 꼭두각시놀음, 유교적 부덕

1. 들어가는 말

‘꼭두각시전’은 19세기 후반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설로, 외롭게 자란 노처녀가 극빈한 집안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이본에 따라 <꼭독각시전>, <꼭썩각씨전>, <꼭두각시전> 등이 있는데, 통칭하여 꼭두각시전이라 한다.

꼭두각시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형성론과 작품론으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형성론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꼭두각시전을 가사가 소설화¹⁾한 작품들 중 하나로 보고 규방가사 중 노처녀가의 영향으로 창작되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다시 노처녀가 I → 노처녀가 II²⁾ → 꼭두각시전의 순서로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과³⁾, 노처녀가 I의 영향을 받아 노처녀가 II와 꼭두각시전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형성되었다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⁴⁾. 둘째는 꼭두각시전은 조선후기 노처녀·노총각 사혼(賜婚)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처녀 담론이 소설로 형상화되었다는 견해이다⁵⁾. 이러한 형상화가 문학의 각 장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보고 <노처녀가>, <김신부부전>, <동상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작품론의 시초를 연 것은 최원식의 연구⁶⁾인데, 그는 꼭두각시전이 평민의 현실주의적 의식 성장을 보여주나 다만 후반부에는 양반으로의 신분상승 의욕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응환⁷⁾은 꼭두각시전

- 1) 장덕순, 「계녀가사시론」, 『국어국문학』3집, 국어국문학회, 1953, 42-43쪽.
김기동, 「가사의 소설화시론」, 『논문집』3·4합집, 동국대, 1968, 131-147쪽.
- 2) 선행연구에서는 규방가사 중에 노처녀의 신세한탄과 부모에 대한 원망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을 ‘노처녀가 I’(혹은 노처녀가A)로, 신세한탄에 머물지 않고 직접 짝을 찾아 성혼하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노처녀가 II’(노처녀가B)로 칭하고 있다.
- 3)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 비평』46호, 1997 겨울;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 재수록, 9-36쪽.
서인석, 「가사의 갈래와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5, 46-173쪽.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5집, 한국시가학회, 1999, 401-426쪽.
- 4)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연구: ‘노처녀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22집, 어문연구학회, 1991, 185-197쪽.
전영민, 「노처녀가의 장르적 변환과 꼭두각시전」, 대전대 석사, 2000, 11-103쪽.
- 5) 고순희, 「<노처녀가 I>연구」, 『한국시가연구』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165-189쪽.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157-182쪽.
- 6) 최원식, 앞의 글, 35쪽.
- 7) 김응환, 「꼭두각시전에 나타난 인물의 기능과 의미」, 『한국학논집』23집, 한양대

의 등장인물들이 조선후기 정치사회적 상황의 총체성을 띠고 있음을 밝혔다. 여기에서 꼭두각시는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여 봉건적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인물, 골생원 가족은 무능력한 양반을, 그리고 꼭두각시와 늑혼하려는 윤봉사는 당시 향촌에서 새롭게 부상하던 권력층인 중간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았다. 그밖에 김현영은 이본들 간의 대비 분석⁸⁾을 통해 상호관계를 밝혔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연구의 토대를 다지는 성과를 남겼다.

앞서 살펴보았듯이⁹⁾ 꼭두각시전의 연구는 가사의 소설화나 노처녀가 연구에 포함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서야 작품 자체에 관심을 돌리고 있지만 양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 요인은 꼭두각시전이 가사의 소설화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논의되다보니 작품의 다양한 특징들은 외면되는 점이 있고, 또 작품 자체로 볼 때 인물간의 갈등이나 극적인 사건 전개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도덕적인 주제만 부각되어 있어 소설로서의 흥미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그간의 연구들이 ‘가사의 소설화’라는 전제 하에 출발하다보니, 꼭두각시전의 연구 성과는 소설이 가지는 장르적 특징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 작품의 면밀한 부분을 살피지 못한 한계를 남겼다. 또 작품 분석에서도 꼭두각시를 평민의식의 성장을 반영한 인물로 보는가하면, 유교적인 면에서 윤리적·심성적으로 우세한 인물로 보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는 꼭두각시전의 특성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한국학연구소, 1993, 147-175쪽.

8) 김현영, 「꼭두각시전 이본연구」, 『청계논총』5·6합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4, 81-105쪽.

9) 이외에도 꼭두각시전을 판소리 중고제의 연희층, 꼭두각시놀이, 꼬대각시 노래와 관련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최명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3.) 뚜렷한 근거가 부족한데다 논문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라 선행연구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필자가 논의의 시각을 넓히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꼭두각시전에 다양한 문학 장르들이 내재한 점에 주목하여 작품의 혼성 텍스트적인 성격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와 관련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기서 혼성텍스트란 타장르의 작품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용된 점을 말하는데, 꼭두각시전이 가지는 혼성텍스트적인 성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꼭두각시전과 노처녀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우이다. 꼭두각시전이 노처녀가-특히 노처녀가Ⅱ의 서사성의 강화이든 개작이든 혹은 둘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든 두 작품이 많이 닮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굳이 창작의 선후를 따진다면 두 작품이 본격적으로 유통된 연대나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노처녀가Ⅱ가 꼭두각시전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꼭두각시전이 노처녀가Ⅱ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무엇이 선후인가를 따지는 것은 관련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자칫 작품의 특성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꼭두각시전과 노처녀가의 경우 창작시기와 관계없이,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유사성과 변별성이 꼭두각시전에 어떠한 특성을 부여하는가를 살필 것이다.

둘째, 꼭두각시전은 부분적으로 기존 문학관습인 판소리사설, 시조, 민요, 설화, 민속인형극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차용과 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판소리사설이나 시조, 민요, 설화처럼 비교대상의 일부가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경우는 차용을, 민속 인형극처럼 표현상의 큰 유사성은 없으나 비교대상이 텍스트의 전개나 주제에 다분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논의를 위한 텍스트는 꼭두각시전은 광명서관본 <로처녀 고독각시(老處女孤獨角氏)>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이본들은 참고할 것이다¹⁰⁾.

10) 꼭두각시전의 이본 현황은 김현영의 앞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어 참고가 된다. 전체적으로 이본들 간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데, 다만 생금획득, 뭇중 금냥,

주된 비교대상인 노처녀가는 기존의 이본들 중 서사화 경향이 가장 짙은 삼설기본 <노처녀가>¹¹⁾로 한다.

2. 인물의 처지와 결연의 상반성

논의에 앞서 <로처녀 고독각시>와 <노처녀가>의 서사단락을 나누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선 숙종조 전라도 무주 땅에 고독각시가 살았는데 혈혈단신 노처녀이다.
- (2) 스스로 용모와 재주를 자랑하며 시집 못 감을 한탄하다.
- (3) 빈한한 골생원 댁에서 봉채가 오자 시집갈 준비를 하다.
- (4) 3년 동안 신랑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다.
- (5) 매파가 윤봉사의 후취를 주선하나 절개를 지켜 거절하다.
- (6) 윤봉사로부터 욕을 볼까 두려워 시댁을 찾아 나서다.
- (7) 어렵게 시댁을 찾아가나 시댁은 극빈하고 신랑은 불구의 몸이다.
- (8) 혼례를 치른 초야에 신랑이 합궁을 재촉하자 참을성이 없음을 타박하다.
- (9) 뒷동산에 올라 무병장수, 백년해로, 유자생녀를 축원하다.
- (10) 꿈에 한 노인으로부터 금냥 세 개를 받다.
- (11) 사당에 먼저 배알하고 이웃에게 인사하니 사람들이 칭찬하다.

최현구제답의 화소가 가감되는 정도가 다르다. 여기서는 작품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광명서관본을 텍스트로 한다. 광명서관본은 1916년에 간행되었는데, 현재 이본들 중에서 필사연대가 알려졌거나 추정 가능한 것 중 최고가 1901년 정도(하성래, 「해학 속에 숨은 서민의 바램」, 『문학사상』, 1980년 5월호, 428-436쪽)이며, 그외 이본들이 필사된 것도 이들과 비슷한 시기로 보여진다.

- 11) 김동욱 교주, 한국고전문학대계4 『삼설기 외』, 교문사, 1984, 594-631쪽. 목판본 삼설기의 간행연대는 184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nate.com/>)

- (12) 세월이 흘러 가산이 불고 아들을 출산하여 신통이라고 이름 짓다.
- (13) 고독각시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생금을 내리다.
- (14) 생금을 김장자의 재산과 상환하여 부자가 되다.
- (15) 호의호식하되 노복을 인의로 사랑하니 가화만사성이다.
- (16) 골생원과 갈부인이 별세하니 고독각시가 애통해하며 상례를 정성껏 치르다.
- (17) 집안을 잘 건사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자손에게 충효를 가르치다.
- (18) 최현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의 아내 이씨를 덕행으로 교화시키다.
- (19) 자손이 번창하고 99세로 별세하다.
- (20) 부인의 일생을 대강 기록하니 후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로처녀 고독각시>의 서사단락은 주인공이 골서방과 성혼하는 (8)을 기준으로 전·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고독각시의 고단한 삶의 내력과 노처녀로서의 한탄 그리고 봉채를 받고 혼인을 치르기까지의 고난이 주된 내용이고, 후반부는 고독각시가 유교의 덕목을 잘 실천하여 극빈한 집안을 부흥시키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18)은 고독각시의 품행에 감동받은 최현의 아내 이씨가 악행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내용으로, 주인공이 집안은 물론 이웃에게도 도덕적 교화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²⁾.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내용은 한 여성이 노처녀로 늙으며 외롭고 서글픈 삶을 살다가 혼인을 치룬 후에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은 <노처녀가>의 서사단락을 나눈 것이다.

- (1) ‘오십이 되도록 시집을 보내주지 않는 부모가 야속하다.
- (2) ‘형제들은 시집가서 잘 사는데 노처녀 신세가 한스럽다.

12) 이 삽화는 대부분의 필사본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고, <로처녀 고독각시>보다 후에 출간된 영창서관본<꼭두각씨이야기>에도 빠져 있다. 그 이유는 한 여성이 지역사회의 도덕적 교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직은 보수적이었던 당시의 독자들에게 용납되기 힘들었거나, 아니면 주인공에 대한 칭찬 일변도로 소설적 흥미가 경감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인 것 같다.

- (3) ' 내 모습, 행실, 재주가 이만하면 뛰어나다.
- (4) ' 나보다 먼저 시집간 동생이 원망스럽다.
- (5) ' 중매장이를 불러 내 힘으로 시집갈 것을 결심하다.
- (6) ' 스스로 점을 치니 준수한 김도령이 천정배필이라 기쁘다.
- (7) ' 김도령과 혼례하는 꿈을 꾸다.
- (8) ' 흥두께를 신랑으로 꾸며 모의혼례를 치르다.
- (9) ' 소원이 이루어져 김도령과 의혼하다.
- (10) ' 혼인 후, 불구이던 몸이 온전해지고 부부금을 좋고 자손이 번창하다.

이 작품 역시 (9) '의 성혼을 계기로 주인공은 성혼 전의 불행한 삶에서 성혼 후의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혼 전의 노처녀의 한탄이고, 성혼 후의 삶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으로 성급하게 마무리 되고 있다.

꼭두각시전을 <노처녀가>의 소설화로 보았던 것은 우선 둘 다 노처녀를 소재로 했다는 점과, 텍스트의 구조면에서 볼 때 성혼을 계기로 주인공¹³⁾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유복한 삶을 누리게 되며, 주인공들의 태도가 주어진 삶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끝으로 표현상에 있어 (3)과 (3)'의 인물·재주·숨씨자랑이 판소리 사설투의 해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두 작품은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인공들의 처지가 다르고 주인공과 결연대상의 신체적 결합이 서로 엇갈려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처녀가>부터 살펴보면, 주인공 '노처녀'는 양반과 서민 중 한 쪽으로 규정짓기가 힘들지만¹⁴⁾, 밥이나 옷이 없어 서러운 게 아니라는

13) 이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주인공은 '노처녀'로, 꼭두각시전의 주인공은 <로처녀 고독각시>의 고독각시로 한다.

14) 김용천은 노처녀가Ⅰ과 노처녀가Ⅱ를 비교하면서, 전자는 가난한 양반으로 후자는 신분은 알 수 없으나 내용으로 보아 평민인 것으로 보았다('노처녀가(Ⅰ)(Ⅱ)고', 『어문논집』,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61, 64쪽). 서영숙은 노처녀가Ⅱ가

표현으로 볼 때 가난한 처지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노처녀’가 시집 못간 원인도 양반의 명분이나 집안의 상황보다는 몸의 반쪽이 온전하지 못한 신체적 결함 때문이다.

흐편 눈이 머러시나 흐편 눈은 밝아잇니 바늘귀를 능히 꿰니 보선볼
을 못바드며 귀먹다 느무리나 크게 흐면 아라듯고 천동소리 능히 듯니
오른손으로 밥먹으니 왼손흐여 무엇홀고 왼편다리 병신이나 뒤간출닙
능히 하고 코구녕이 퍽퍽흐나 너음시는 일슈만네 넘시울이 푸르기는 연
지빋홀 발나보시 - 삼설기 <노처녀가>¹⁵⁾

‘노처녀’는 자신보다 먼저 시집간 동생을 원망하고, 시집을 보내주지 않아 화증을 내고, 죽음을 결심할 만큼 좌절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별 것 아닌 것을 크게 자랑할 만큼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이고, 직접 매 파를 불러 남편감을 고르는 적극적인 행동도 보인다. 특히 스스로의 처지는 개의치 않고 인물 좋은 양반 도령들 중에서 남편감을 물색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로 쳤던 김도령과 의혼한다.

턴정비필이셔시면 제라셔 마다흔들 니 고집 니 억지로 우김성의 아니
들가 소문의도 드러도러시 니 눈의 아니들가 저 건너 김도령이 날과 셔
로 년갑이오 뒤골목의 권슈즈는 니 나보단 더흔지라 인물 조코 즐기츠
니 슈망의는 김도령이오 부망의는 권슈지라 - 삼설기 <노처녀가>

의혼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신방의 동침 후 불구이던 몸마저 온전해지는 요행을 겪는다.

서민적인 여성이 혼인을 통해 양반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았다.(서영숙, 앞의 글, 4쪽). 그러나 ‘노처녀’의 혼인과 그 후의 부귀영화의 삶을 당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 실제 ‘노처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15) 원문을 인용하되 띄어쓰기는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이하 모든 인용문이 그러하다.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김도령과 의혼하니 첫마디의
되노고나... 신방의 금침피고 부뷔셔로 동침하니...먹은 귀 발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니 이 아니 희한한가 - 삼설기 <노처녀가>

<노처녀가>의 성혼은 노처녀가 현실적 인물에서 비현실적 인물이 되는 계기이다. 전반부에서 몸이 불구인 처녀가 시집을 못가 탄식하다가 꿈속에서라도 시집을 가게 되어 기뻐했는데, 불의에 꿈을 깨고 보니 아쉬운 마음에 모의혼례를 치렀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후반부의 실제 성혼에 이르러 나이 50에 동갑인 김도령과 혼인하며 스스로는 불구인데 신랑은 인물 좋은 양반이다. 게다가 부모님과 동생들이 나서니 쉽게 의혼이 되는 것을 보면 지금껏 왜 못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성혼 후 '노처녀'의 불구인 몸은 온전해지기까지 한다. 이렇게 볼 때 <노처녀가>의 전반부가 주인공 스스로의 처지를 탄식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표현했다면, 후반부는 당대의 노처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그려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집가서 문재 있고 준수한 자손을 낳으며 부부의 금슬 좋고 부귀공명을 누렸다는 것도 그렇게 되고 싶은 바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혼인한지 십삭만의 옥동자를 순산하니 쌍티를 어이알니 즐겁기 층양
업니 기지이 영준이오 문지가 비상하다 부부의 금슬조코 자손이 만당하
며 가산이 부요하고 공명이 이름츠니 이 아니 무던한가 이 말이 7장
우습고 희한하기로 기록하노라 - 삼설기 <노처녀가>

그러므로 <노처녀가>는 해학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시집가지 못한 여성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의 사건전개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노처녀 고독각시>의 고독각시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인물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자란 처녀가 집안마져 가난하여 27세가 되도

록 시집을 못 갔다. 고독각시가 ‘노처녀’와 다른 점은 신체적 결핍은 없지만 환경적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처지를 감안해서인지 고독각시가 꿈꾸는 혼인은 ‘노처녀’에 비해 구체적이면서도 거창하지 않고 소박하다.

시집가서 효봉구고 승순군즈 햐야 아들낫코 쌀을 나아 남가녀혼 햐야
손즈 삭기 번성햐고 룡간디청 집을 짓고 셔화 부벽 붓쳐 뇿코 양디에
방아 걸고 음디에 우물 파고 화초논 뒗쓸에 뇿코 압논에 오레 심고 양
디에 묵화 뇿코 문전에 과목 심어 실과는 씨를 찾고 빅곡이 풍등흔디
아희난 소 먹이고 남종은 김을 밟고 녀종은 길삼햐니 그런 호강 또 잇
난가...자식손즈 버려 안즈 놀이 식면 조반 먹고 째 맛초아 보리 닥겨 점
심햐고 울밋히 호박 심어 국쓰리니...보리탁쥬 걸너 뇿코 어마님 잡슈시
오 시아머님도 잡슈시면 소녀도 먹으리다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
시>

고독각시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받들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집안 살림을 가꾸며 가족들과 정겹게 사는 것을 소망한다. 이것은 ‘노처녀’의 가산이 부요하고 공명이 잇달아오는 거창한 꿈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신랑에 대한 기대에서도 인물이나 집안보다 인성에 가치를 두고 있어 ‘노처녀’와는 구별된다.

우리랑군 남중일식 호풍신에 영웅호걸이 절륜한 디장부난 못될망장
스람이나 순후햐고 부모의게 효순햐며 동괴간 우의 잇고 처즈를 스랑햐
며 비복을 인의로 부리고 화순햐면 니 마음과 갓흐련마난 그러치 못할
진디 한평성 원슈로다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시>

그런데 실상 고독각시에게 들어온 혼처는 극빈한 골생원 집안이고, 혼인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혼서지를 받은 후 3년 동안 시택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게 된다. 게다가 어렵게 찾아간 시택에서 만난 남

편은 한쪽 눈, 한쪽 팔, 한쪽 다리 등에 결함이 있는 불구이기까지 하다. 외롭게 자라 가난한 집의 불구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고독각시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애처로울 수밖에 없지만, 고아에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못생긴 노처녀에게 그것은 현실적인 혼인이다.

초가삼간 집에 안벽이 쓰러지고 뱃벽은 외만 남았구나 봉당 속에 시
아범 골성원니 골동디 빗겨 물고 집신들을 닥아안고 안갓스며 시어미
갈부인은 굴문상을 찡그리고 주린 이를 잡으면서...신랑을 바라보니 모
양이 홀룡하다 곰비팔에 혼다리 절고 혼눈 멀고 반썩장 등에 가진 병신
절묘하다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시>

여기서 신랑의 모습이 <노처녀가>의 ‘노처녀’와 비슷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처녀가>에서는 여주인공이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결연의 대상인 김도령은 온전한 반면, <로처녀 고독각시>에서는 반대로 주인공은 온전하지만 남편인 골서방이 ‘노처녀’와 같은 ‘반쪽’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몸이 불구인 여성이 온전한 남성 그것도 준수한 양반도령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처지가 딱한 여성이 불구인 남편을 만나는 것은 실현가능한 이야기이다.

결연 후의 모습도 다르다. 앞서 살폈듯이 ‘노처녀’와 김도령의 결합은 사실적인 사건전개가 아닌 노처녀의 꿈과 이상에 대한 표현일 뿐이었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독각시에게 혼인은 불행의 심화이면서 또 한 번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겨준다. 성혼 전에는 노처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였고 그것을 해결했다면, 성혼 후에는 극심한 가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처녀 고독각시>의 고독각시는 <노처녀가>의 주인공 ‘노처녀’와는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이나 결연대상, 그리고 결연 후의 모습에서 상반된 특징을 가짐으로써 이야기의 개연성을 획득하고 있다. 불구인 ‘노처녀’가 온전하고 준수한 양반 도령과 혼인하여 몸이 온전해지고 부

귀공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허황되고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처녀가>가 노처녀의 한탄과 꿈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인 고독각시가 극빈한 집안의 불구 신랑에게 시집가서 바른 예법과 성실함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는 <로처녀 고독각시>는 <노처녀가>에 비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3. 기존 문학관습의 효과적 활용

조선후기의 소설이 판소리, 민요, 잡가, 설화 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이 작품 전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른 소설에서 보기 드문 문학관습의 흔적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숙지해 볼 필요가 있다.

<로처녀 고독각시>는 판소리 사설 투의 신세한탄과 신랑집안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릴 때에 삽입된 시조창과 한시¹⁶⁾, 그리고 골생원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 삽입된 잡가 ‘유산가’¹⁷⁾에서 다분히 기존 문학관습이 차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용은 소설의 재미를 더해주지만,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면 생략하더라도 작품 전체에 그리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꼬댁각시요>와 ‘내 복에 산다형’의 설화의 차용 및 <꼭두각시놀음>의 착안은 소설의 사건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처녀 고독각시>의 고독각시 및 여타의 이본에 보이는 꼭두각시, 꼭꼭각시¹⁸⁾는 <꼬댁각시요>의 꼬댁각시와 음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¹⁹⁾

16) 이가원 역주, 「꼭두각시 실기」, 『국어국문학』14, 국어국문학회, 1955, 99쪽 미주 참조.

17) 장송은 락락하고 록죽은 의의하며 산류즈 측빅 충충들 미목은 스면에 버렸는디 리화도화 두견화난 광풍에 헛놀이며 만장폭포 맑은 물은 이골져골 합슈헛야 구 비구비 출녕 흘너가며 쳐다보니 만악이 오나려다보니 빅스디라

삶의 내력에서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고독각시가 노처녀가 되고 가난한 집안의 불구인 신랑에게 시집가게 된 것은 부모의 죽음과 가난 때문이었다. 꼬댁각시 또한 어려서 고아가 되어 삼촌 집에서 구박을 받다가 가난한 집안의 고자 신랑에게 시집가는 불행을 겪는다. 소설의 앞부분은 고독각시의 27년간의 삶을 두어 줄로 압축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꼬댁각시요>를 차용함으로써 독자들이 하여금 구구절절 말하지 않은 고독각시의 서러운 삶의 부분까지도 연상하게 한다.

세살에 어미죽고 혈혈무의하야 십세에 아비 죽어 제홀로 즈라 고독단
친으로 세월을 보너미 년광이 이십칠세라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
시>

십세의 모친이 괴세허고 칠세의 부친이 죽고 의탁할 곳시 업서 절벽
에선 나무갓치 제절노 혼즈 즈라 연광이 이십칠세에 이르도록 - 나손
본17장 <꼭독각시전>

꼬대각시 불쌍허다/ 한 살먹어 어미죽구/ 두 살먹어 아배죽구/
삼촌집이 찾어가지/ 삼촌은 달이채(차)구/ 삼촌이(의)댁 내이(어)채구 20)

또 고독각시가 몽중에 한 노인으로부터 금냥 세 개를 받는 것과 산신
묘에서 품에 안은 수탉이 금으로 변하는 것²¹⁾은 그의 평범하지 않은 면
모를 보여주는데, <꼬댁각시요> 또한 연행과정에서 한 여성을 가운데

18) 차례로 나손본 17장<꼭독각시전>, 영창서관 <꼭꼭각시이야기> .

19) 이현수는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의 영향 하에 꼬댁각시요와 꼭두각시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그 근거로 발음의 유사성을 들었다.(『‘꼬댁각시요’ 연구』, 『한국 언어문학』33집, 90쪽).

20) 한국학중앙연구소, 『구비문학대계』4-4, 1983, 919쪽.

21) 한 편의 고혼 비석이 이젓거날 가만이 보니 산신묘라 허여더라 그 으피 누른 슈
탁 한 마리가 잇스니 꼭시 고히 여겨서 흥즈치마을 버셔들고 부르니 그 달기 치
마 속의 드려오거날 꼭씨 디회 허여 안고올시 무겁기 측양읍더라 간신이 와서
방의 노코 보니 달은 간더 읍고 난더 읍난 금덩일세(나손본 13장 <꼭각씨전 호
록 권지단>).

앉히고 주위 여성들이 <꼬댁각시요>를 부르면 그 여성에게 꼬댁각시신이 내려 맹렬하게 춤을 추고 점술도 하는 등의 신기한 행동을 보인다²²⁾. 즉 고독각시나 꼬댁각시는 일상적인 삶에서 접신이 가능한 존재²³⁾라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꼬댁각시요>를 차용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꼬댁각시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고된 삶을 살고 있어 옛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의 총체성을 띤 인물이다²⁴⁾. 따라서 <꼬댁각시요>의 수용은 고독각시의 서글픈 처지를 부연하는 한편, 소설의 후반부에서 펼쳐지는 고독각시의 유복한 삶과 그 삶의 원인이 되었던 유교적 부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인공의 생금획득담이다. 성혼 후 고독각시의 효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생금을 내려주는데, 골서방은 그것이 생금인지도 모르고 이에 답답한 고독각시는 직접 나서서 생금과 김장자의 재산을 교환하여 부자가 된다. 여기에 나오는 바보신랑과 생금획득의 화소는 제주도 무가 <삼공본풀이> 및 ‘내복에 산다’ 형의 설화에서 볼 수 있어, 소설이 설화의 화소를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고독각시가 부자가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시댁을 찾아온 고독각시가 본 풍경은 시아버지가 미숙한 솜씨로 미투리를 만들고 굶주린 시어머니가 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질탕관 하나에 사발 두 개 뿐인 살림살이였다. 그런데 소설은 이처럼 극빈한 삶에서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화에서 차용함으로써 이야기는 사실성을 잃고,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준다’는 종래의 가치관을

22)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0, 68-69쪽.

23) 그렇다고 고독각시나 꼬댁각시가 전문적인 점신행위자인 무당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유교적 봉제사가 남성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그 외 가정 내의 가신신앙은 여성이 주관했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점신은 평범한 여성의 일상적 삶을 통한 점신행위로 보는 것이다.

24) 그런 점에서 꼬댁각시는 <꼭두각시놀음>의 꼭두각시와 상통한다. 따라서 꼬댁각시, 꼭두각시, 고독각시는 불행한 삶을 산 여성을 대변하는 말로 볼 수 있다.

확인하는 데 그쳐버린다. 이것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작가의 능력부족 이면서, 아울러 중세의 질서가 해체되는 사회상황에서 주인공에게 구체적인 가난극복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작가의 한계이기도 하다²⁵⁾. 한편으로는 보수적 이념인 유교적 덕행을 강조하다보니, 그것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하늘을 감동시키거나 타고난 복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생금획득담은 설화의 단순한 수용이 아닌 소설의 전개에서 작가가 부딪친 한계이며, 그 한계를 복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존 문학관습에서 착안한 경우이다. 우선 주인공의 이름을 꼭두각시, 꼭꼭각시²⁶⁾, 고독각시라고 명명한 것은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듯하다²⁷⁾. 앞서 <꼬댁각시요>의 수용을 통해 인물의 비극적 처지를 부연하면서 동시에 후반부의 유교적 덕행에 의한 유복한 삶을 강조했듯이, <꼭두각시놀음>에서 남편에게 버림 받고 첩에게도 패배하는 꼭두각시의 이름을 차용하여 인물의 비극성을 강조하면서, 역시 후반부에서의 주인공의 유교적 부덕에 대한 보상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꼭두각시놀음>에서 꼭두각시가 가출을 감행하는 것도 소설이 인형극을 착안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꼭두각

25) 중세적 사고관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입신양명이다. 고독각시는 골서방을 도와 과거에 급제하게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자손을 잘 훈육하여 부귀공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원이라는 양반신분임에도 골생원의 극빈한 모습이 말해주듯 이미 신분의 상승이 부귀로 이어지는 공식이 적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6) 차례로 나손본 17장<꼭두각시전>, 영창서관 <꼭꼭각시이야기>.

27) 《문헌통고》<해동역사>에 고구려의 ‘괴뢰’를 당에 진상한 기록이나(김재철, 『조선연극사』, 동문선, 2003, 152-153쪽), 이규보의 시<관농환유작(觀弄丸有作)> 등을 통해(윤광봉, 『유랑예인과 꼭두각시놀음』, 밀알, 1994, 162쪽) <꼭두각시놀음>이 소설에 비해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이 인형극에서 주인공을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형극의 꼭두각시와 민요의 꼬댁각시의 관계는 선후를 규정하기 힘들다고 본다.

시놀음>과 가면극 ‘영감·할미’ 과장을 비교해보면, 가면극의 본처 할미는 첩과의 갈등이나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 언정 가출을 시도하지는 않는다²⁸⁾. 그러나 꼭두각시는 표생원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재산이 첩에 비해 보잘 것 없자 과감히 집을 나가버린다. 이로 인해 가정은 해체되고 꼭두각시의 불행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진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나 소설의 고독각시는 혼인 후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가고 있고 결국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고독각시에서 꼭두각시가 연상될수록, 가정사에서 도피하는 인형극 속 꼭두각시는 소설의 저변에서 끊임없이 고독각시와 대조되면서 여성의 부덕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이 <꼭두각시놀음>과 관련한 흔적은 주인공의 생김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반고슈머리 노랑털은 스람이 뿔자하고 모질격이오 이마 넓은 거슨 활달디도 혀야 의스가 만홀격이오 눈이 마늘 모진 거슨 눈니 밝고 남의게 만만치 아니할 격이오 귀가 큰 거슨 명이 길고 말 잘들 격이오 코가 너른 거슨 숨쉬기 시원하고 음식넘시 잘 맛들 격이오 넓이 큰 거슨 말 잘하고 밥 잘 먹을 격이오 목이 다가붓기난 남 보기에 탐탁하며 물동의 잘 일격이오 얼굴이 적은 거슨 모질고 연지분 덜들 격이오 허리가 굴근 거슨 요통 업슬 격이오 엉덩이 퍼진 거슨 희산 잘 흘 격이오 발 큰 거슨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 할 격이오니 이럿케 신통흔 스람 또 어디 잇스리오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시>

반고수머리와 마늘처럼 모진 눈, 큰 귀, 너른 코, 큰 입, 짧은 목²⁹⁾은

28) 전승되는 민속가면극 중 예외적으로 <봉산탈춤>과 <강령탈춤>에서 할미가 영감에게 세간을 나누어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강령탈춤>에서는 할미가 집을 나간다(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196-246쪽). 그러나 다른 가면극에서는 주로 할미가 죽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29) 이 부분은 삼설기본<노처녀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꼭두각시전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꼭두각시 인형의 생김새와 흡사하다. 꼭두각시 인형은 손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고독각시의 작은 손과 통하고, 연행방식의 특성 때문에 턱과 목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끝으로 고독각시의 혼수준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독각시는 골생원 댁으로부터 봉채를 받은 후 혼수를 준비하는데, 가난한 처지에 융통성을 발휘한 물품들이 자못 해학적이다.

의복이 전혀 업다 빈흔흔 집에서 하여 줄가 니 의스로 싱각햐 마련
 햐갓구나 족두리는 조롱박으로 더신희고 큰머리는 또아리로 룡잠은 슈
 슈더로 더신희고 찌기적삼 업섯스니 통테로 못할소냐 노리지 업섯스니
 바둑돌과 독기로 더신희고 가락지 업섯스니 며물국슈로 감아보세 운혀
 신희 업섯스니 나목신희로 더신희지못할소냐 청홍스업섯스니 무명실로 더
 신희고 연지분 업섯스니 봉선화로 더신희고 도화분 업섯스니 무리풀로
 더신희고 그난 그러햐거니와 폐백을 아니햐지 못할지라 썩흔마리 잡아
 다가 햐리라 햐고 뒤동산에 올라가니 쥬려죽은 까마귀 나무 싯히 걸넛
 거늘 급히 올라가 잡아다가 털을 싯고 불에 그슬여 제법햐 건치를 민드
 러노햐니 위불업난 건치로다 또 한가지 이젓도다 디초를 어이햐고 올라
 쫓타 또햐가지 계교 싱각냐다 뒤동산에 올라가서 머루다래 훑터다가 햐
 사실로 뛰여놋코 햐난 말이 니 의스 이만햐면 어더 가서 못살소냐 - 광
 명서관 <로치녀 고독각시>

신부 복색이 머리에 조롱박을 얹고 또아리로 큰머리를 대신하고 거기에 수수대를 꼰았다. 동체를 입고 바둑돌과 도끼를 노리개인양 달고, 손에는 메밀국수 가락지에 발에 나막신을 신었으며, 청홍색 실이 없어 무명실을 준비하고 봉선화와 문종이를 바르는 풀로 얼굴을 화장하고, 폐백으로 죽은 까마귀 고기와 머루다래를 준비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혼례를 치를지언정 이러한 혼수준비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준비는 이렇게 했지만 골서방과의 실제 혼례는 소반에 정안수를 떠놓고 소박하게 치른다.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혼례식³⁰⁾은 해학적이지만 앞서 고독각

시가 혼수를 준비했던 과정에 비하면 오히려 사실적이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부의 혼수준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평민적 노동체험의 반영을 통한 평민문화의 독자성 인식³¹⁾이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³²⁾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롱박, 또 아리, 수숫대, 메밀국수 가락지, 나막신, 까마귀고기 등등에서 우선 연상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가장놀이이다. 실제의 고독각시는 혼수를 준비할 처지도 못되고 준비한 혼수도 변변치 않다. 작가는 생활 속의 소도구로 아이들이 벌이는 가장놀이를 이용하여 고독각시의 혼수준비를 묘사하고 있으며, 자칫 비장해질 수 있는 장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가난하다고 해서 예법을 생략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모습을 통해, 서민적 활달함을 가진 고독각시의 이면에 내재된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발상이 가능했던 것도 인형극 <꼭두각시놀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비현실적인 인형을 놀려 삶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인형극의 특성에 착안하여, 아이들의 허황된 가장 놀이로 혼수준비를 묘사하여 가난한 살림에도 혼례의 기본절차를 지키려는 꼭두각시의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기존 문학관습의 차용과 착안은 주인공의 생기 넘치고 발랄한 서민적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소설의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특성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결국 유교적 주제의식으로 귀결되는 것은 <로치녀 고독각시>가 가지는 특징이면서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30) 신랑신부 전안홀시 공석을 쌍에 깔고 소반에 정안슈 써서 돛코 전안홀시 신랑의 치장보소 반팔등거리에 잠방고의 넓고 편즈만 남은 현망근에 철디 엽난 파립 쓰고 - 광명서관 <로치녀 고독각시>

31) 최원식, 앞의 글, 29쪽.

32) 김응환, 앞의 글, 168쪽.

4. 주제 덧씌우기와 의미

<로처녀 고독각시>와 <노처녀가>는 전체적인 서사구조가 주인공의 혼인을 계기로 양분되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로처녀 고독각시>는 전반부에서 시집 못간 노처녀의 한탄과 혼인하기까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이야기의 초점은 후반부인 성혼 후 주인공의 유교적 덕행과 극빈한 집안을 부유하게 하는 과정에 맞춰져 있다. 이 부분은 분량에서도 전체 이야기의 절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처녀가>가 ‘노처녀’의 탄식위주로 전개되다가 성혼 후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로처녀 고독각시>는 혼인 전의 이야기가 다양한 기존의 문학관습을 수용하여 흥미 있고 해학적인 반면, 혼인 후에는 여성이 가져야 할 유교적 도덕성에 치중하여 경직되고 관념화된 내용으로 소설적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물의 성격에 있어서도 혼인 전이 발랄한 서민적 기풍이 지배적이라면 혼인 후에는 유교적 도덕성으로 무장된 이상적인 여인상을 구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처럼 발랄한 서민상에서 유교적 여인상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노처녀가>의 전반부에서 ‘노처녀’는 시집을 가지 못해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다. 고독각시 또한 고아로 자란데다 가난 때문에 노처녀가 되고, 그 비극적 운명이 이어져 극빈한 집으로 시집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이 결코 슬프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해학적 표현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즈 나나즈를 십년만의 씨쳐니니 효형록 열녀전을 무슈이 숙독흐
 밋 모를 형실 바이 업고 구고봉양 못홀손가 중인이 모힌 곳의 방귀 췌
 여 본 일 업고 밥쥬겨 업혀 노와 니를 죽여 본일 업니 장독 소리 벽겨니
 여 뒤물 그릇 혼일 업고 양치디를 집어니여 축목혀여 본 일 업니 이니

행실 이만하면 어디가서 못술손가 - 삼설기 <노처녀가>

너 형실 볼작시면 도마거동에 걱정흔 일 업고 밥푸다가 주걱등에 이
죽여 본 일 업고 뒷물소리기로 장독 덥혀 본일 업고 쑥 무든 손을 쓰물
통에 써서 본 일 업고 우물맞히 오즘 누어 본 일 업고 이웃집 불 붓난
디 키질하야 본 일 업고 동니 집 희산한디 기 잡아 본 일 업고 겹집에
적신할 제 못박아 본 일 업고 자라난 호박에 말쑥 박아 본 일 업스니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씨>

위 인용문은 ‘노처녀’와 고독각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실 자랑
중의 일부분으로 다분히 해학적이다. 최원식의 견해를 빌면³³⁾ 이러한
해학성은 소격화의 장치로, 인물과 독자의 거리를 넓혀 자칫 독자가 인
물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
와 인물의 관점에서 바라본 견해이다. 위와 같은 해학적 표현이 작품 내
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인물에게 비극적 주인공으로만 머무르지 않
게 하며 삶의 건강성과 원초적 생명력을 부여해 준다. 그것은 고독각시
가 시집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독각씨 시집간다고 도와하난 거동보소 마늘 모진 눈을 부릅쓰고 코
마루를 발췌기며 송곳갓흔 입을 낚홀거리면서 이리저리 강동강동 췌놀
면서 하느 말이 동리 아희들아 너 말 들어보소 나도 시집갈 썸 잇섯고
나...얼스절사 도홀시고 동니방니 손님니야 이니 말슴 들어보오 너 집에
하인 업서 청좌 못 보니오니 청좌업다 말슴 마르시고 부디부디 그늘와
서 구경하오 기야기야 검둥기야 췌들마라 나는 도와셔 췌거니와 너는
무숨 일로 저리 췌나냐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씨>

이러한 서민적 발랄함과 생명력 때문에 ‘노처녀’가 매파를 부르고 직
접 신랑을 고르는 것이나 고독각시가 스스로 시집을 찾아가서 극빈한

33) 최원식, 앞의 글. 29쪽.

집안을 일으키는 것 등의 여성 우위적 행위가 무리 없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인물의 서민적 기상은 성혼 후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노처녀’는 주인공의 성격변화 없이 단지 잘 살았다고 끝나는 반면 고독각시는 유교적 부덕을 가진 여성상으로 변모하게 되고, 때문에 활달한 기상은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으로 서민적 기풍은 양반의 교화적 태도로 바뀌게 된다.

고독각시는 골생원과 의혼한 후 소식이 끊어진 상황에서 더 좋은 혼담이 들어와도 지조와 절개를 이유로 거절한다. 첫날밤 합궁을 재촉하는 신랑에게 면박을 주고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미루면서 사당참배를 우선적으로 행하며, 시부모의 죽음에 상례의 정성을 다하여 동네사람들로부터 효부로 칭찬받고, 부족한 남편을 정성으로 섬기고 자손들에게 충효를 가르치며, 동네의 양아와 통간하고 남편을 죽음의 위기로 내몬 이씨를 교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이처럼 후반부의 고독각시의 삶은 유교적 부덕의 실천으로 일관되어 오히려생활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인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두 작품 다 말미에서 작품의 전개에서 벗어난 서술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노처녀>에서는 “이 말이 7장 우습고 희한하기로 기록하노라”고 하여 작가가 이야기의 해학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로처녀 고독각시>에서는 “고부인의 초스 지닌 바와 나중 일을 생각하야 인의례지를 저마다 본을 삼으면 자연이 감탄하는 리치가 소연하기로 붓을 들어 더강 기록하나니 후인들은 고부인 형적을 모범할지어라”고 끝맺음으로써 소설의 지향점이 유교적 가치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로처녀 고독각시>의 뒤에 ‘복선화음편’이 첨가된 것이나, 나손본17장 <꼭독각시전> 뒤의 ‘부모은덕가’의 첨가, 그리고 영창서관본 《노처녀의 비밀》에 <고독각씨이야기>와 함께 유교적 부덕과 관련된 일련의 작품들이 실려 있는 것³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노처녀가>가 노처녀로 늙어가는 여성의 답답함을 재미있게 표현하여 안타까운 상황을 재치 있게 풀어보고자 했다면, <로처녀 고독각시>는 주인공의 주체적인 면모와 다양한 문학관습의 확대를 통해 골계와 해학을 강조하되, 결국 그것을 유교적인 부덕으로 귀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가사처럼 전반부에서 발랄하고 적극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성장한 서민의식을 내세우지만, 후반부에서는 결국 유교적 가치관의 선양이라는 주제의식을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³⁵⁾.

작가는 왜 이러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독각시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고자 한 것은 가장 서민적이면서 결핍이 많은 인물이 유교적으로 도덕화 관념화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외세의 위협과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라는 시대상황에서 작가는 유교적 가치관의 고수만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고아,가난’이라는 열성(劣性)적이면서 결핍된 요소를 두루 갖춘 인물이, 서민적인 발랄함과 긍정적 태도를 유교적 덕행과 연결시켜 유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복고적인 가치관을 언급하면서 굳이 기득권에 대한

34) 영창서관본 《노처녀의 비밀》에는 경계해야 할 여성상을 다룬 <괴동어미이야기>, 시집가사의 고구봉양과 치산을 다룬 <치가교훈가>, 형제의 우애는 그 부인에 의해 그르칠 수 있음을 경계한 <형제가>, 그리고 <로처녀가>와 <회심곡>이 실려 있다.

35) 가사에 비해 소설이 유교적 가치관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노처녀가와 꼭두각시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 가사와 그의 영향을 받은 소설을 아울러 살펴볼 때 명확해지리라 본다. 다만 꼭두각시전을 통해 필자가 생각해 본 이유는 <노처녀가>는 노처녀의 심정과 희망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로처녀 고독각시>는 다분히 유교적 가치관을 선양하겠다는 의도 하에 창작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덧붙여서 작가가 남성인가 여성인 점에 중점을 두지 말았으면 한다. 가사의 작가는 여성이라서 심정 토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소설의 작가가 남성이라서 여성의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사의 작가는 남성이라서 노처녀를 해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소설의 작가는 보수적 여성이기에 유교적 덕행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으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풍자적 성격이 강한 <꼭두각시놀음>에서 주인공을 착안한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한다. <신한민보>의 기사는 이러한 의문점을 푸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그 연극의 성질과 희문은 잇섯스나 활동할 줄을 알지못하고 이것을 하등 사회에 밋겨둠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다만 음란한 풍기를 일우엇도다 이 증거를 우리가 춘향가와 박첨지의 작란을 보아도 가히 알지라 만일 춘향가와 갓흔 정티에 관한 락극을 잘 기량하야 구락부나 연극무더에 용감스럽게 활동하얏스면 응당 인민의 풍기를 개량할지어늘 이를 하지 안이하고 부허한 문즈만 숭상하는 가온디 박첨디 흥동디와 갓흔 작란이 려향간에 순형하야 인민의 풍기가 비루하고 겁약한디 틈룬되엇더니 - <신한민보> 1914년 9월 10일

이 기사에서 말하는 <박첨지>는 바로 <꼭두각시놀음>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꼭두각시놀음>을 비롯한 <춘향가> 등이 하층 사회에서 유행했고 상층에서 보기에 그것은 음란하고 인민의 풍기를 비루하고 겁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들 연희가 개량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만 신문발행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후기 상층사회에서 바라본 기층 연희문화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치녀 고독각시>를 비롯한 꼭두각시전이 <꼭두각시놀음>에서 주인공을 착안하여 여기에 복고지향적인 주제 의식을 덧씌운 것도 이처럼 개량화의 한 단면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작가가 유교의 덕성만을 강조하여 서민을 교화하는 것을 지향한 것만은 아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당대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꼭두각시전에서 시집간 여성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위적 입지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막연히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극악한 조건에서도 인간적 도리를 잃지 않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꼭두각시전’에 <노처녀가>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관습이 내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꼭두각시전’이 가지고 있는 혼성텍스트적 성격과 주제의식을 살펴보았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꼭두각시전은 첫째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남녀의 결연에서 <노처녀가>의 ‘노처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주인공을 더욱 비극적 인물로 만들지만 작품의 개연성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꼭두각시전은 판소리 사설, 잡가, 설화 등의 다양한 기존 문학관습을 활용하고 있는데, 민요와 설화의 차용은 단순한 흥미목적이 아니라 인물창조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주인공의 이름과 생김새는 민속극인 <꼭두각시놀음>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인공의 생김새나 혼수준비의 가장놀이적 성격도 <꼭두각시>놀음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서 작가는 <꼭두각시놀음>에서의 착안을 역이용하여 유교적 도덕성을 구현하고 있다.

셋째 <노처녀가>가 시집 못간 여성의 한탄을 발랄한 서민적 기풍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면, 꼭두각시전은 서민들의 원초적 생명력과 발랄함이 성혼 후 유교적 부덕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발랄한 서민의식에 유교적 주제를 덧씌우려는 의도로, 조선후기 외세의 침탈과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보수적 가치관의 회복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꼭두각시전의 주인공을 민속인형극에서 착안한 이유도 <꼭두각시놀음>을 풍속을 비속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그 개량화를 주장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한편 꼭두각시전의 초점을 ‘여성의 삶’에 둔다면, 소설은 여성이 가정공간에서 주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 인간적 도리의 함양임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꼭두각시전은 재미있는 소설은 아니다. 단순한 사건전개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화적인 주제의식은 소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유교적 부덕의 피력은 조선후기 근대지향적인 시대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소설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사상의 선양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꼭두각시전이 보여주는 다양한 문학관습의 활용은 소설 창작의 열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소설을 가사의 소설화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영향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작품에서 나타나는 민속인형극의 흔적은 연희와 소설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꼭두각시전은 노처녀가Ⅱ 계통을 의도적으로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처녀가Ⅰ과 함께 세 개가 동시에 비교될 때 명확해지리라 본다. 아울러 ‘꼭두각시전’, ‘꼭두각시놀음’, ‘꼬댁각시요’에 나타나는 ‘꼭두각시’의 의미를 비교 고찰해 보는 것도 이 소설의 문화사적 위치를 가늠해보는데 필요하리라 보며, 이는 다음 논의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광명서관, <로처녀 고독각시>.
- 김동욱, 『필사본 고전소설자료총서』6, 보경문화, 1991, 347-449쪽.
- 김동욱 교주, 한국고전문학대계4 『삼설기 외』, 교문사, 1984, 595-629쪽.
- 신한민보, 「연극의 희문이 풍속 지량과 정신고취에 필요함」, 1914년 9월 10일.
- 영창서관, <꼭꼭각시이야기>.
- 이가원 역주, 「꼭꼭각시 실기」, 『국어국문학』14, 국어국문학회, 1955, 81-102쪽.
- 하성래, 「해학 속에 숨은 서민의 바램」, 『문학사상』, 1980년 5월호, 429-439쪽.
- 한국학중앙연구소, 『구비문학대계』4-4, 1983, 192-194쪽, 479-480쪽, 919-921쪽.
- 『구비문학대계』4-5, 1984, 795-797쪽, 935-937쪽.
- 고순희, 「<노처녀가 I>연구」, 『한국시가연구』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165-189쪽.
- 김기동, 「가사의 소설화시론」, 『논문집』3·4합집, 동국대, 1968, 131-147쪽.
- 김용천, 「노처녀가(I)(II)고」, 『어문논집』,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61, 63-66쪽.
- 김응환, 「꼭두각시전에 나타난 인물의 기능과 의미」, 『한국학논집』2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3, 147-175쪽.
- 김현영, 「꼭두각시전 이본연구」, 『청계논총』5·6합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4, 81-105쪽.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대 박사, 1989.

- 서영숙, 「〈꼬댁각시 노래〉의 연행양상과 제의적 성격」,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2002, 118-137쪽.
-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연구: ‘노처녀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22집, 어문연구학회, 1991, 185-197쪽.
-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소설화 양상」, 『고시가연구』5집, 한국시가문학회, 1998, 311-329쪽.
- 서인석, 「가사의 갈래와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5.
-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157-182쪽.
-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1989, 159-188쪽.
- 이현수, 「‘꼬댁각시요’ 연구」, 『한국언어문학』33집, 87-104쪽.
- 임동권, 『한국의 민요』, 보고사, 1980, 66-69쪽.
- 장덕순, 「계녀가사시론」, 『국어국문학』3집, 국어국문학회, 1953, 42-44쪽.
- 전영민, 「노처녀가의 장르적 변환과 꼭두각시전」, 대전대 석사, 2000.
-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5집, 한국시가학회, 1999, 401-426쪽.
- 최상수, 『한국 인형극의 연구』, 성문각, 1988, 29-41쪽.
-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 비평』46호, 1997 겨울;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 재수록, 9-36쪽.
- 최진형, 「가사의 소설화 재론」, 『성균어문연구』 32집1,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1997, 213-244쪽.

<Abstract>

A study on The Mixed-Text Factors and Main-Concept of Kkogdugaksigeon

Kim, Kuk-Hee

This paper is aimed at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Kkogdugaksigeon and its main-concept, noting the correlation between ‘Nocheonyeoga-a spinster song’ and the established literary customs, for the purpose of studying Kkogdugaksige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kogdugaksigeon is opposed to Nocheonyeoga, showing the mixed-text factors, which means partially borrowing or drawing an idea from the previous literary customs.

The summary of the mixed-text factors and main concept of Kkogdugaksigeon is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the main characters of Kkogdugaksigeon and Nocheonyeoga have the opposite position in their situations and the choice of marriage mates. As for Kkogdugaksigeon, this distinct feature contributes to gaining the probability of this story, giving both tragic and realistic personality to a heroine, Kkogdugaksi.

Secondly, Kkogdugaksigeon makes good use of various literary customs like Pansoril, Japga, Seolhwa, and so on. Proper uses of Seolhwa, such as ‘Kkogdugasi-play’ and ‘I Live Up to My Fortune.’ play an important role not just on a simply fun-oriented approach but also on a portrait of characters and theme presentation. On the one hand, the name and appearance of a heroine in this story is devised from a folk puppet play, Kkogdugaksi-play. Considering the process

of a heroine's preparing for wedding gifts has a similar trace as that of Kkogdugaksi-play, Kkogdugaksigeon is associated with Kkogugaksi-play.

Thirdly, while Nocheonyeoga expresses the lamentation of a not-married lady in a humble style, Kkogdugaksigeon focuses on strengthening Confucian wife-virtues after marriage by offering common people's primitive vitality. Thus, Kkogdugaksigeon implies that showing a variety of fun and a humble style through the acceptance of the previous literary customs is meant to present a little boring story effectively and put Confucian theme into cheerful common people's thoughts at the same time.

The reason the writer had this kind of main concept is that the answer to solving the facing problems-eternal threat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and the collapse of traditional values, was just to preserve Confucian valu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Kkogdugaksigeon is derived from the source of characters in Kkogdugaksi-play suggests that the upper class in those times considered Kkogdugaksi-play as an object of manners improvement.

Furthermore, this story reveals that a woman in the chaotic state of value is able to become an independently happy being in her home by performing consistent endeavor, sincerity and human duty on the view point of a woman's lifetime.

Key Words : Kkodugaksi, Kkodakgaksi, Kodokgaksi, Nocheonyeoga, mixed-text, I Live Up to My Fortune, Kkodugaksi-play, Confucian wife-virtues

■ 논문접수 : 2009년 7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8월 12일